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5)

자택에 '하심정' 열어 무료급식 공양

금강경 실천행자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원장



김원수 원장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화학과 석박사과정(물리화학전공)을 수료했고 홍익공업전문대 금속과 교수, 홍익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前동국대 총장 백성욱 박사 문중에서 출가해 수행 4년을 거쳤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사무총장을 지냈다. 불교신행단체 바른법연구원을 설립 법당을 건립(1988)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복지재단 이사장과 무료급식소 하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김영사)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 다. 어두운 무명속을 헤매던 제가 깨어났고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고 밝은 세상과 만났 조. 그야말로 광명대천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불법은 공기와 같고 밥과 같아요. 제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혜로워질 수 있 다는 것이고 세상에 잘 쓰일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원장(70)은 금강경 가르침 에 따라 '하심정'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보 시행을 펼치고 있다. 그의 삶은 온전히 부처님 가르 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 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늘 수행하 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을 일생의 업으로 삼는다.

선지식을 만나다...백성욱 박사

그가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불교에 매료되었던 청년 김원수는 전공 서적 이상으로 불교 서적을 끼고 다녔다. 그렇게 불교에 빠져들면 빠져들 수록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은 점점 커져 갔 지만 그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선지식이 없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ROTC 장교로 지내던 그는 불교의 새로운 경지를 가르쳐 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前동국대 총장 백 성욱 박사였다. 백 박사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 동을 그는 이렇게 회고 한다.

“<육조단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종 법사가 해능 스님 법문을 듣고 '제가 여기하는 것은 기왓장과 같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금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백 박사님 법문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이런 것이 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들이 기왓장이었다 면 백 박사님 법문은 순금과 같았죠”

그는 백 박사 제자가 되어 주말이면 매주 부친 소 사 도량에 가서 수행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 록 청년 김원수는 욕망을 향해 쫓아가는 세속의 삶 에 희의를 느꼈고 진리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후 그는 군에서 제대하고 스승 의 거처인 부친 소사 도량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기 로 하고 금강경 실천 수행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먹고 자며 철저히 수행자의 삶을 살았 죠. 그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간의 삶은 부귀영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에 지 나지 않았다는 것어요. 제 전공 역시 공학이었기 때 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주로 믿었어요. 하지만 수 행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 낸 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터득한 거죠”

그는 당시 백 박사의 가르침이 육조 해능 대사의 무념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분별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 어요. 이때의 부처님은 아무 형상 없는 부처님, 무실

무의 부처님이시죠.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이 육 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무념법의 실천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후 저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 지 않고 부처님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살행의 서원을 세우다

이렇게 4년간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무념법을 깨닫고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청년 김원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한때 출가를 생각 했었지만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백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굳이 출가가 아니더라도 현재와 같은 군은 각으로 세상 일에 임한다면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어 백 박사는 현실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해준다. “직장에 나가게 되더라도 봉급을 받거나 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성공할

군시절 백성욱 박사 만나 수행 입문

“보살행 실천하라” 스승 백박사 당부

‘부처님 시봉 잘하는 삶 살자’ 다짐

금강경 공부모임 바른법 연구원 개원

금강경 행자 양성 전문교육 도량

‘금강경 실천 연수원’ 설립 새 발원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셨 어요. 스승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보살행을 실천 하며 살라고 당부했지요. 그것이 마음을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든 일을 부처님 사 업으로 알고 일하며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삶 을 살자고 원을 세웠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그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교수 가 되어 오랫동안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사명이 있었다. 불법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래서 많 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었다. 그렇게 그는 88년부터 교양시 원당동에 바른 법연구원을 설립해 금강경실천수행을 세상에 알리 기 시작했다.

제가 수행을 이끌며 일상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늘 그의 마음 속에는 허 전함이 있었다. “참선 명상 등의 수행은 자신을 돌 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보살행을 통해 스스로 를 밝게 하기에는 부족할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 면 세상과 나누는 삶으로 보시행을 실천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늘 제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 었죠”

어느날 그는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결심 하게 된다. 처음 시작은 바른법연구원 이 위치한 고 양시 원당동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식사 하러 오 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다.

“식사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왜 이 려게 오는 분들이 적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 그곳은 도시 개발로 돈을 번 노인들이 많아 급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 형편 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인근 무주택자들의 비닐하우스촌에 반찬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시작으로 오늘의 ‘하심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여기서 김 원장은 봉사라는 것이 막연히 좋은 뜻 만 갖고 행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에 봉사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선 좀 더 현실적 안목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2004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 망 원동 자신의 3층 주택을 개조해 무료 급식소를 만들 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주택 대문을 열고 정원을 개조하고 대 나무 지붕을 만들어 임시 급식소를 만들었다. 이름 은 ‘하심정(下心亭)’.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구 절을 인용해 만든 이 명칭은 마음을 닦는데 하심(下 心)이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른법연구원 회원 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열정을 다해 어르신들의 공양을 대접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둘 식사 하러 어르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당시는 그래도 현지 교수 신분이라서 월급을 받 았죠. 이 월급을 갖고 ‘하심정’을 운영해보자고 마 음먹고 무작정 담벼들었죠.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여기저기 서 심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모두들 큰 힘이 돼 주었습니다.”

‘하심정’ 반대하던 이웃 이제는 후원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하심정도 1, 2층을 개조해 여럿한 식당의 모습을 갖 졌다. 주 2회 급식을 하는 이곳에 한 달이면 2천 5백 여명이, 1년이면 3만 명이 다녀간다. 8월 11일로 개 입 8주년을 맞은 ‘하심정’에 그 기간 동안 다녀 간 어르신만 1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반대는 이웃들에게 있었다. 시의원이라도 나가려고 그러나 왜 이 동네에서 이런 급식소를 운 영하느냐 등 뜻하지 않은 항의도 받았다. 하지만 그 는 그저 부처님 법에 따라 모든 것을 회향한다는 마 음을 갖고 깨끗하게 뜻을 펼쳐 나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인근 시장 상인들도 팔다 남은 물건을 놓고 가고 급식을 먹고 간 노인들이 요 구르트를 놓고 가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이 웃이 자원봉사자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기도 했 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 신자도 자원봉사자가 되었 고 급식 먹러 왔던 어르신도 일을 거드는 진풍경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경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회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철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범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범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진북총무원장 석철산 미산총무원장 석법경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주총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철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중을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종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1) 입중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바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중 후 발급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모집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가대신 “보살 되자”



김원수 원장은 1988년 바른법연구원을 설립해 금강경 실천 수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일요 법회 장면.

이 별어졌다. 모두가 하심정 후원자가 된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웃들 반대가 그렇게 거셀 줄 몰랐죠. 하지만 모든 게 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밀고 나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 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제는 조계종서 국수도 제공해 주고 마포구청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도 주는 등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아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심정을 운영하며 느낀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남에게 나누면 인정도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지 세상이 다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나누면 상대도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무료급식소 운영을 통해 체험하게 됐죠”

세상과 통하는 ‘불교’ 만들고 싶다

이제 ‘하심정’은 무료급식소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다. 김 원장은 화·목요일 무료급식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심정’을 한식 뷔페 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심정’의 독립 운영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을 찾던 그는 4년 전 흥익대 교수직을 은퇴하면서 새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복지 기업 ‘하심정’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조미료를 넣지 않은 청정 식당으로 말이다.

“사실 복지 식당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후원과 보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수익을 내서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경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 2회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지난 8년간 10만 여 명 다녀가

‘하심정’에서 한식뷔페도 운영 더큰 회향 위해 복지 법인 설립

생각했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뛰어 우리 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하심정’을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심정은 이윤을 내기 위한 다른 기업과는 다르다. 바른법연구원 회원들이 직원이 되어 운영하는 ‘하심정’은 아침 근무 시작 전에 모두 ‘금강경’ 독송을 한다. 그리고 모든 고객을 부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루 일과를 연다. 수행과 일의 일치로 통해 제대로 된 불교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김 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은 주변에서 찾기 힘들지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직은 소규모 식당이지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면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예를 ‘하심정’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 원장은 불법을 믿고 따르면 그 누구보다 세상일에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무료 급식소 하심정은 매주 화·목요일 두차례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급식공양을 한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하심정 전경. 평상시에는 급식소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일반 한식뷔페 식당으로 운영된다.

고 덧붙인다.

“불법을 믿고 따르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출가만이 길은 아니지요.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행할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불교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그게 진정한 포교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의 서원은 ‘금강경 실천 연수원’을 설립해 유능한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행복과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 깨달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는 “금강경 실천법을 세상에 적용하면 최상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몇 십년 못 풀진리도 풀 수 있죠. 이렇게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강경 실천 연수원을 세우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강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금강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탐진치를 부처님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죠. 올라오는 화도 마음의 어리석음도 헛된 욕심도 부처님 마음으로 돌이키면 모두가 좋은 일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삶을 수행으로 돌이켜 진정한 행복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김 원장. 많은 이들이 진정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는 오늘날 자신의 수행을 세상에 회향하는 구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잃어버린 합죽선

이따금 펼쳐보는 합죽선이 있다. 그러기를 일 년 여. 그것은 합죽선을 들고 출행하였다. 원채 햇살이 따가워서였다. 더위를 쫓는 시원함 보다 햇살 가리개로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마치고 갔다. 밖은 여전히 폭염이 이글 거러 사용했던 합죽선을 찾아보니 보이지 않았다. 주위도 살펴보고 소지품의 구석구석을 두루 훑겨 보았으나 영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 아차, 잃어버렸구나.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허탈함이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분모가 있을 것 같다. ‘더 간수를 잘 할걸 ... 아니면 가지고 외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낭패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비라별 생각과 닳두리가 덧대어 갔다.

사람이건 물건이 되었건 그저 보기만 해도 좋아 앤들핀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버린 부채 역시 흥이 나오는 물건이다.

미명(未明) 김지안(金智雁) 보살님이 손수 그린 그림이 들어있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 보살님은 그림에 능하고 가야금도 어느 경지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뛰어난 기예에 신심이 깃든 작품이니 소중함이 오죽했랴. 그림은 대나무였다. 원근법이 선연한 대나무.

대나무의 종류와 용도는 다양하다. 갓대와 조릿대로는 조리를 만들고, 이 대로는 담뱃대·부채 등을 만든다. 이대를 산죽이라고도 하고 오구대 혹은 신위대라고도 부른다. 왕대나 솔대로는 건축자재·가구·빗자루·완구 등 일용품을 만든다. 왕대는 고죽(苦竹)이라고도 하고 솜대는 담죽(淡竹)이라고도 부른다.

죽을 열거하다보니 죽이 들어간 말들이 다양하여 열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고죽은 왕대라 했고, 수죽(修竹)은 가늘고 긴 대를 말한다. 객죽(客竹)이 있는데 손님을 위해 장만한 담뱃대를 이르고, 은죽(銀竹)은 몸시 퍼붓는 소나기를 이르는 말이다. 석죽(石竹)은 패랭이 꽃이다. 석죽색이라고 하면 분홍색을 이르는 말이고.

말이나 글이란 선인관이 앞서다 보면 낭패를 입을 소지가 많으니 함부로 입을 댈 수 있는 일도 아닌 듯 하다.

식물이 꽃이 핀다는 것은 신비의 극치요 희열이 아닐 수 없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 결실이 따르리 마련인데 대나무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개화병(開花病)이라는 게 있다. 대나무의 번식과는 상관없이 돌연변이의 일종이다. 대나무는 불로장생한다는 단약(丹藥)이라도 상복하는 지 나이테가 없고 비대장상을 하지 않는 외떡잎식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가 맑고 절개가 굳으며 마음을 비우고 천지의 도를 행할 군자가 본받을 품성을 모두 지녔다 하여 무척 좋아 하였다.

그 한 사람이 윤선도이다. 그의 오우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골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는
나?
저리고도 네 계절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고산은 그의 담론의 장이었던 세연정에서 삶의 여백을 즐기며 곧은 지조와 푸른 절개를 대나무에 비유했던 것이 아닐까.

부채는 그 역사가 오래인 듯 하다. 3세기에 가야 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구려 벽화에서도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송나라의 곽약하가 지은 <도화견문지>에 “고려에서 들어오는 접점선을 사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접점선은 손에 쥐는 부채의 일종인 합죽선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 1123년 송나라의 서공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그림과 글로 기록한 <고려도경>

보기만 해도 즐거운 부채 분실

절개 상징 대나무 그림 선연해

누군가 소유 했다면 기쁨 주길

에는 “고려인들은 한 겨울에도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접었다 폄다 하는 신기한 것이다.”고 감탄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양쪽 변죽에는 국화무늬가 있다. 국화는 서리를 맞고 피어나는 꽃으로 여인의 절개를 상징하였다. 부채 속살에는 앞뒤로 박쥐를 그려 넣었다. 박쥐는 오복의 상징으로서 경사와 행운을 나타내고 있다. 박쥐 북(?)자를 북북자로 해석하는 데에서 기인된 듯 하다. 박쥐는 조류나 쥐류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며, 새처럼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이다. 신비하리만치 2 마이크로 초, 즉 1초의 1/500 간격으로 전달되는 중박 에코를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디로 갔을까. 잃어버린 합죽선을 생각해 본다. 내 손에서 벗어난 부채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새롭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성을 떠난이 저승에서는 탄생이 되듯이, 소유하게 된 사람은 나이테가 없는 대나무 같이 늘 푸르길 바란다. 그리고 전 주인이 보며 앤들핀이 나왔듯이 항상 기쁨을 나르는 합죽선하기를 바라는 것은 잃은자의 허탈함을 채우기 위한일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평화·금교·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정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울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전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시리함

크리스탈 인등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A/S 빠른 접수 10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빈도저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빠른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